

< 별첨 >

제1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2019.4.17(수) 10:00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라일락홀(2F)

금융위원장 환영사

2019. 4. 17.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그리고 금융권이 함께
지식재산(IP) 금융 포럼*을 창립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식재산 금융포럼 :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IP금융
발전방향 모색, 제도개선 방안도출 및 정책제언 등을 논의(연 2회 개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고
협업의 기회를 제안해주신
박원주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주요 은행 부행장님을 비롯한
많은 금융업계 관계자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동산담보법 개정 TF 위원장으로서
오랜기간 저희와 함께 일괄담보 등 새로운 법제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고려대 지원림 교수님,

선진 IP금융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멀리 영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신
영국 Inngot(인곳)社의 Martin Brassell(마틴 브라셀) CEO께서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식재산 금융포럼이
한국 IP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지식재산의 생태계 육성의 중요성

내빈 여러분!
과거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경제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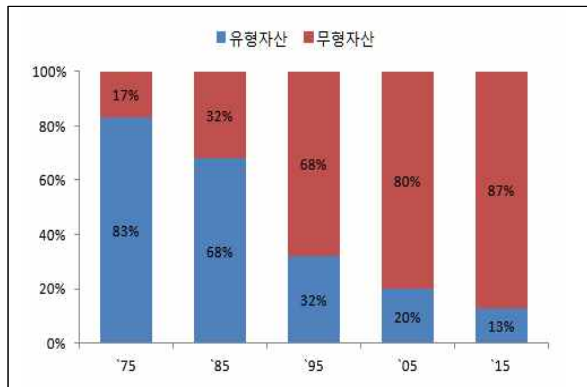
일례로 미국 S&P 500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의 약 84%가
IP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S&P500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4%

한국의 코스피(KOSPI) 상장기업의 경우도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중이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 활용도와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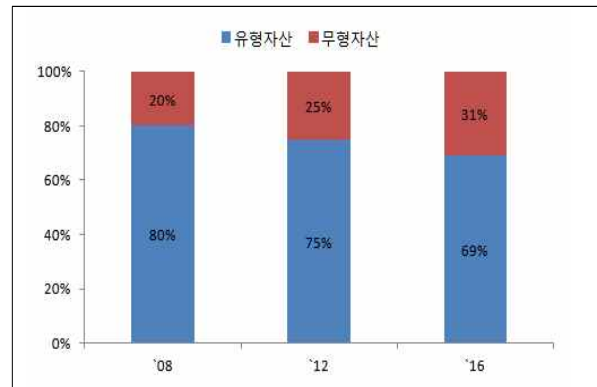
* KOSPI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08) 20% → ('12) 25% → ('16) 31%

美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추이



주 : S&P500기업 기준

韓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추이



주 : KOSPI 상장기업 기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국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미래기술·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강한 미국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시) 美무역대표부는 주요 경쟁국의 정책 등이 기술이전, 지식재산, 혁신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 요소가 없는지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17.10월~)

중국은 '중국제조 2025 혁신전략(2015년)'의 틀 속에서
'지식재산권 중점지원 산업목록(2018년)'을 마련하고
10대 산업*, 62개 세부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10대 산업) 현대농업,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제조, 신재료, 청정에너지
·생태환경, 현대교통기술·장비, 해양·우주기술, 선진바이오, 헬스, 문화산업

일본은 2017년 이후 매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년)’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시) 복수디자인 일괄출원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법 개정을 추진

한국도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 없습니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친화적인 가치평가체계 구축,
회수구조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의 노력에 힘입어
강화된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원활한 IP금융 거래를 위한 법제 정비*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 *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특허법 개정, '19.7월 시행) : 특허권 침해 사안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를 배상
- ② IP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발명진흥법 개정, '19.4월) : 특허청장이 부실화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의 근거를 마련

무엇보다 최근 우리정부는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혁신금융과 IP금융 정책방향

혁신금융은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을 강조합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인내하는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이고,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의 문서화된 증거입니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인내자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향후 혁신금융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은행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겠습니다.

둘째, 지식재산권 창출과 산업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의 R&D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2조 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을 신규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분야 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금융회사가 혁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은행의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평가)를 통해
4월부터 IP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
다각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IP담보에 대한 금융권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P회수전담기관이
부실화된 지식재산권 담보를 적정가격에 직접 인수해주고
은행을 대신해 담보 IP의 가치를 회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특허청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 맺음말 : 금융권에 당부하는 말씀

내빈 여러분

얼마 전 대통령님을 모시고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19.3.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금융기관은 부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특허, 기술력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기업인의 이야기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식재산 금융포럼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시중은행에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출시) 우리은행 CUBE론-X('19.3월),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19.4월)
(출시예정) 국민은행 1+1 IP담보대출(5월), 농협 IP담보대출(6월 예정)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영역이니만큼
우수사례와 경험이 공유되어
금융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은 혁신금융의 양분이며
「혁신금융」은 혁신성장의 토양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마음을 모아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유익한 논의들이
우리 IP 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재산 금융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